

2004년 5월에는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하여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남북 직항로를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2003년 111회 운항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하반기부터 당국간 회담 중단 등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운항횟수가 대폭 줄어 대북 구호물자 수송 등을 위해 28회 운항되었다.

###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

(2004.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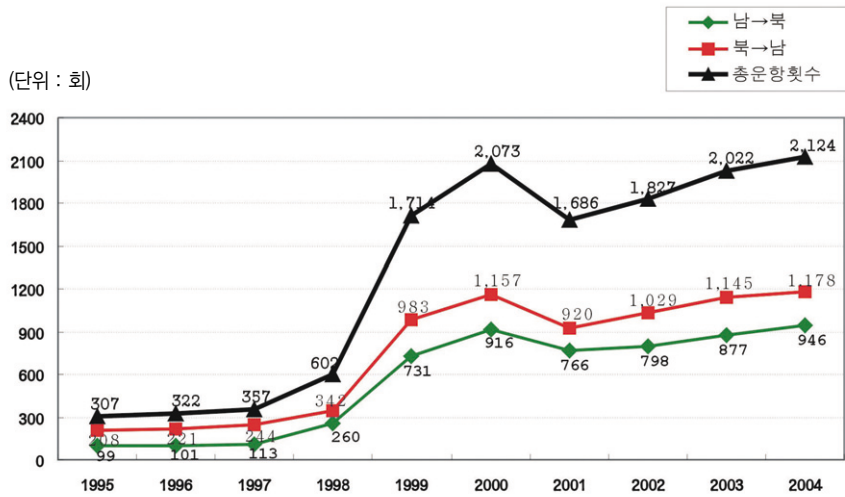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I~인텔셋~평양~신포	8	1997.8.4
		2	2000.7.26
		6	2001.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5.18
		2	2003.9.19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	3	2000.11.21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개성	2	2003.12.15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개성	2	2004.12.24
합 계		33	

### 【 남북간 항공기 운항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남 ➡ 북	20	8	33	55	14	130
북 ➡ 남	23	11	34	56	14	138
총운항횟수	43	19	67	111	28	268

### 【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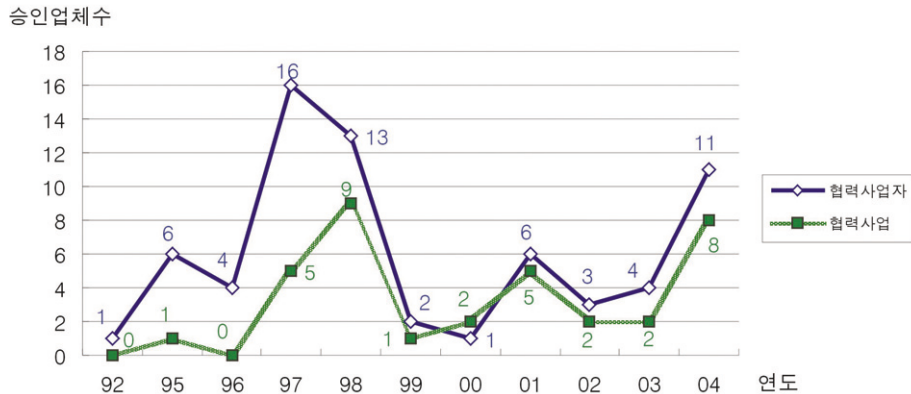
## 제4절 남북경제협력사업

###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2004년에는 개성공단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더불어 개성 이외 지역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해 동안 11건의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과 8건의 경제협력사업 승인(개성공단개발 관련 사업 제외)이 이루어짐으로써 2003년에 비해 승인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1992년 이후 2004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67개 업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35개이다

【 연도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이후 북한이 남측 인사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남북협력사업들이 탄력을 잃게 되었고 새로 승인받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작도 하지 못하는 등 남북경협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2000년부터 시작된 제조업분야의 일부 제품생산은 중단없이 이루어졌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최초로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반입한 이래 2004년까지 42만 달러 상당의 반제품을 반입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이후 2004년 말까지 「휘파람」, 「빠꾸기」등 4개 모델의 자동차 571대를 생산하여 410대를 판매하였다.

그동안 상업용 물자의 육로 수송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던 태창의 금강산샘물개발사업도 동해선 육로를 통해 샘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2004년 9월에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안동대마방직은 북한에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베제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생산설비를 갖추어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G-한신은 평양에 유리제품 생산 시설 건립·운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규모를 290만불에서 560만불로 증액하고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 반출 승인을 받았으나 평양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등을 문제삼아 자재 반출을 보류한 바 있다.

2000년 3월에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삼성전자는 2004년에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 5개 신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북한과 합영으로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동개발사업을 남측 인사의 방북 불허 조치와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4년도에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KT측은 북한측과 음성인식 무선자동교환시스템 보강 관련 음성데이터 구축 공동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 2004년중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주)G—한신, (주)경평인터내셔널 (합영)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김치, 된장, 상황버섯음료 등)	평양	240만불	'03.10.31 ( '04.3.20)
▲ (주)안동대마방직 (합영)	새별총회사, 화성합작회사	삼베섬유제조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 '04.9.17)
▲ (주)서진인터크루 (합작)	광명성총회사	핸드백 등 피혁제품 제조	평양	800만불	'04.6.8 ( '04.7.7)
한국환경자원공사	광명성총회사	페비닐 재생처리 공장 건립 · 운영	남포, 원산	110억원	'04.7.9
▲ (주)KT (공동연구)	조선컴퓨터센터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음성인식 무인자동화 교환시스템' 보강 추진	서울, 평양	12.3만불	'04.7.23 ( '04.7.23)
▲ 제일유통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순안구역 산림지대	54.6만불	'04.8.21 ( '04.8.21)
▲ 상하씨엠 (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 · 운영	남포	5만불	'04.9.17 ( '04.9.17)
에스피메디텍	조선컴퓨터센터 (KCC)	복한 특허기술 이용 의료기기 생산	서울	-	'04.9.17
이원유통상사	수정금강산샘물회사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	황북, 신평, 평양	582만불	'04.9.17
▲ 브이케이(주)	삼천리기술회사	휴대폰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중국 상해	43.3만불	'04.9.23 ( '04.9.23)
▲ (주)제이유네트웍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 · 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 · 판매	평양	-	'04.12.30

주)▲는「협력사업」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착수하여 철도는 2002년 12월말에, 도로는 2003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의 착공 등에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다.

착공식 이후 남북은 공사를 착실히 추진, 2003년 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2004년 3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남북은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북측 역사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고려,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가능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거쳐 2005년말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

(2004.12.31 현재)

노선	종류	규모	거리(Km)	구간		공사현황
경의선	철도	단선	27.3	우리측(12km)	문산~MDL	'02.12.31 완료
				북측(15.3km)	MDL~개성	궤도부설 완료
	도로	4차선	12.1	우리측(5.1km)	통일대교~MDL	'03.10.31 완료
				북측(7km)	MDL~개성	공사 완료
동해선	철도	단선	27.5	우리측(9km)	저진~MDL	공사 진행중
				북측(18.5km)	MDL~온정리	궤도부설 완료
	도로	2차선	24.2	우리측(4.2km)	송현리~MDL	'04.11.30 완료
				북측(20km)	MDL~고성	공사 완료

남북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 및 가능한 구간의 철도 시험운행에 필요한 공사를 합의된 일정대로 완료하였으나, 7월 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어 행사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측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면 도로개통 및 철도 시험운행 행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종 입장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동해선 도로를 임시 개통하고 남북간 공식 개통 이전이라도 완공된 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을 제한해 왔던 이용대상을 인도적·상업적 목적의 인원과 물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로

위와 같은 철도 도로 연결공사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철도 도로 연결공사가 완료된 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열차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2004년 4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차량운행합의서와 더불어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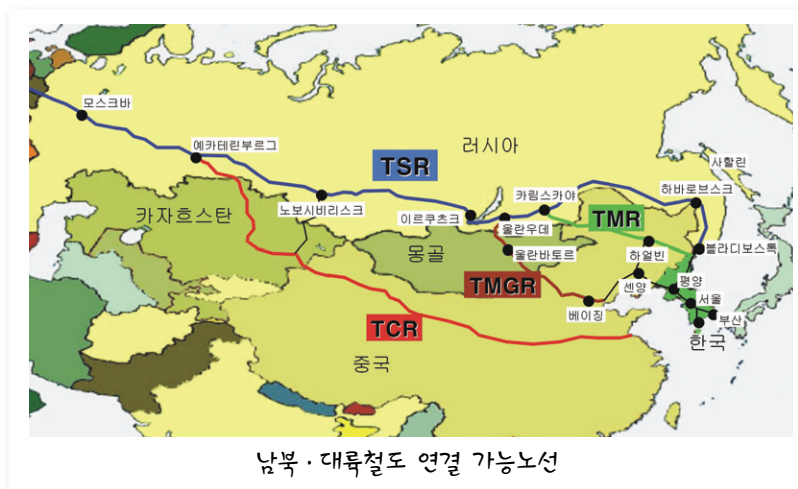
앞으로 남북간 철도·도로의 본격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면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었던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평화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한반도 동서 양쪽에서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의 촉진과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동해선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 및 설악산 연계 관광을 촉진하여 동해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후 TKR-TSR의 연계를 구상, 2003년 10월 APEC에서 한·러 정상간에 합의한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 회의를 2004년 4월 모스크바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TKR-TSR 연결을 위한 기술적·실무적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동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



2004년 6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SEM 철의 실크로드 국제심포지엄」에 박정성 북한 철도성 대외협조국장을 비롯한 아시아·유럽의 25개국 민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향후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진척에 따른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값싸고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 등의 기술력 및 자본이 결합되어 유럽연합(EU)과 같은 거대한 경제권 구축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금강산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은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되고, 그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1월 18일에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항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2002년 들어 사업자의 자금난과 육로관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01년에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2002년 4월부터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예산을 삭감함으로써 2003년부터 경비지원이 중단되고, 사스



금강산육로관광

(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전염방지를 위한 북한의 검역강화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두달간 중단되는 등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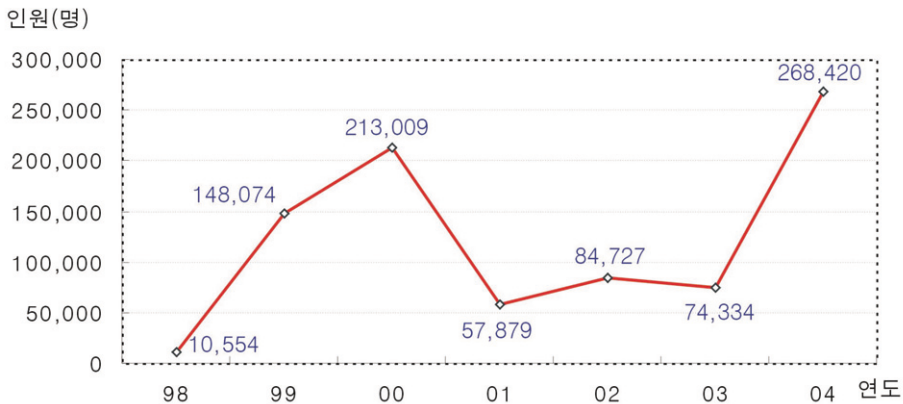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11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곧이어 2003년 1월 27일에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하는 등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였다.

이어서 사전답사(2003.2.5~2.6)와 시범관광(2003.2.14~2.16) 및 일반인 대상의 육로관광 실시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2003년 3월 2일부터 북측이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도로의 사용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육로관광은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사업자는 북측에 육로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였고, 남북한 당국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육로관광 재개에 합의하여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었다.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설악-금강권 연계관광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관광객이 월평균 2만명을 넘어 연간 총26만명에 이르는 등 금강산관광이 정상화의 추세에 들어서게 되었다.

【 연도별 금강산관광객 변화추이 】



육로관광이 정례화되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부족한 숙박시설과 위락·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 호텔을 개관(2004.7.2)하고 가족호텔 건립도 추진하였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18홀)을 건설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금강산 6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착공식을 개최(2004.11.19)하였다.

한편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온정각~

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를 포장(13.4km)하고 온정각-금강산호텔에 이르는 노후된 구간들의 도로를 보수(7.5km)하였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기간(2004.12~2005.2) 동안에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총 2만여명(인솔교사 포함)을 선발하여 금강산 체험학습을 시작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비무장지대를 지나 북한지역을 통과(약 11km)하면서 남북간 연결된 철도·도로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등 생생한 남북관계 발전상황을 직접 보고, 금강산 현지에서 북한 관광안내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2004년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자가 약78%에 이르는 등 금강산 관광이 통일교육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7월 이후 검색된 남북관계 하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어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평화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환경도 착실히 마련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한데 이어, 2003년 10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 경계를 확정하였다. 2004년 들어서도 「출입·체류·거주규정」과 「지구관리기관설립·운영규정」 등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특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2004년 10월에는 「부동산 규정」을 발표하여 남한, 해외동포, 외국 기업 및 개인이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금강산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대아산도 WTO(세계관광기구) 등과 협조하여 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현대아산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호텔,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본격적인 특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이 금강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

적 타당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4. 대북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북한주민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2004.6.2~5)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7월 1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억2천4백 만달러 범위 이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 주요 합의내용(2004.7.13) ]

- 제공 규모 : 쌀 40만톤(국내산 10만톤, 외국산 30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 단가 : 톤당 300달러
  - － 차관금액 : 1억 2,400만달러 범위내
- 차관조건 : 10년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
- 차관계약자 :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
- 수송일정 및 조건
  - － 식량차관 합의서 서명 이후 육로수송은 2주이내, 해로수송은 8주이내 첫 출발
  - － 하역항 :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등 6개항
  - －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 부담
- 분배투명성 보장
  - － 제공자 표기 : 쌀, 40kg, 대한민국
  - － 분배내역 통보 :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통보
  - － 분배현장 확인 : 매 10만톤 전달완료 시점에서 동·서해 및 내륙지역에 각 1회이상 현장확인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2004년 7월 16일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측은 식량인도회사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북한은 식량인수회사로 수매양정성 산하 청길무역회사를 선정하여 인도 인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수송은 쌀 40만톤 중 국내산 10만톤은 7월 20일부터 동·서해 육로를 통해 개성과 고성지역으로 각각 7만 5천톤과 2만 5천톤씩 수송하였고, 외국산 30만톤은 2004년 9월 3일 1항차 출항(태국 방콕항)을 시작으로 2005년 2월 6일 마지막 34항차까지 6개월에 걸쳐 남포, 송림, 원산, 홍남, 청진 등 총 5개 항구로 전달할 예정이다.

2004년 식량차관 제공은 1995년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육로수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4년여에 걸쳐 완공한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식량수송 경로를 내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인도지원물자, 교역물자 등의 육로수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많은 북한주민이 식량수송 차량행렬을 목격함으로써 남한에서 쌀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 3개월에 걸친 육로수송 기간동안 매주 360여명의 인원과 340여대의 트럭이 동·서지역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며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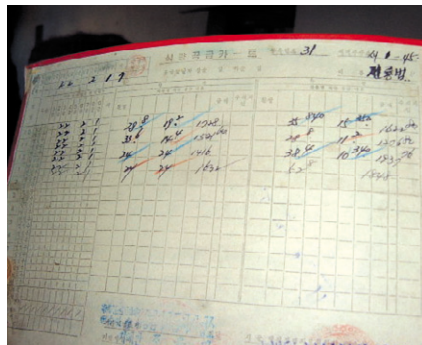
대북식량차관 첫 육로수송

한편, 정부는 식량의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원된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우리측 인원이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확인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매 10만톤 단위로 10개 시·도, 194개 시·군 구역에 대한 분배 결과를 통보해 왔다. 2004년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참관하는 등 분배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3·4차 분배현장 확인은 2005년 1월과 2월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분배현장확인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 쌀은 kg당 46원, 외국쌀은 kg당 36원씩, 1인당 하루 300~380g, 월 2회 공급하고 있었다.



식량분배 현장



식량분배 내역서

### 【 분배현장 확인 개요 】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구분	지역	일시	식량공급소
1차	고성	10.14	조양 식량공급소	2차	남포	12.5	은덕 식량공급소
			온정 식량공급소				
	개성	10.15	제1 식량공급소		함흥	12.11	희상3호 식량공급소
			제4 식량공급소				

한편 북한 주민들은 남한 동포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쌀의 품질과 맛에 대해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5절 개성공단 개발

### 1. 개 관

#### 가. 개발 개요 및 의의

##### (1) 개발 개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우리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으로, 북한 개성시 일대 약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로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이 공동으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 본격 가동에 대비한 사전 pilot project 차원에서 2만8천평을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시범단지에는 15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2,3단계를 포함하는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와 북측간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의 기본 구도에 따라 1단계는 100만평 규모의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을, 2단계는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을, 3단계는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복합 공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단계별 개발계획 )

## 총계획

- 면적 : 총 2,000만평(65.7km<sup>2</sup>)
  - －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 － 1단계 : 100만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 － 2단계 : 세계적 수출기지 구축
  - －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복합 공업단지
- \* 배후신도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건설

## 1단계(100만평) 개발 개요

-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2,205억원
- 시 행 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 \* 2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 15개 기업 입주



## (2) 개발 의의

개성공단은 우리측 사업자가 공업지구의 토지를 북측으로부터 장기간 임대받아, 공단개발·분양 및 내외부 기반시설 건설을 주도하고, 북한 법인인 관리기관을 설립·운영하면서, 우리 기업이 공장설비·기술, 원부자재를 직접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특수한 형태의 북한 경제특구이다. 개성공단 개발은 기존의 남북협력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결합됨으로써 남북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에 기여한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증진은 군사적 긴장완화로 연결,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 성공시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개성공단은 중장기적으로 평화변영정책의 목표인 동북아시대 구상을 향한 교두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의 금융과 인천의 물류기능과 연계하고, 북한 중심지역인 평양과 남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그 의미를 확대하면 남북경제공동체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은 물론 동북아 지역내 안정과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성공단은 참여정부 평화변영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변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나. 추진 경과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와 아태·민경련이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004년 4월 13일에는 1단계 100만평 토지 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1,600만불)을 북측과 체결하였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중소기업들의 조기분양 요구를 반영하여 100만평 공단내에 우선 입주가 가능한 2만8천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4년 4월 23일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자는 1단계 부지조성 공사 및 시범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시범단지 분양에 따라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15개 기업이 6월 14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차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9월 10일 (주)리빙아트의 공장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 1월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였으며, 이 중 리빙아트 개성공장이 2004년 12월 15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기념식과 축하식을 가졌다.

또한 10월 20일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개소식을 갖고 현지 공단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북측도 공단개발이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정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데 이어,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7개의 법규를 제정하였고, 2004년에 「외화관리규정」 등 4개 규정을 제정하는 등 그간 총 11개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다. 북측은 나머지 회계규정도 조만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은 2002년 12월 8일 개성공단 통관·통신·검역 합의를 채택(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2002.12.6~8, 금강산)한데 이어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험합의서를 발효하고, 2004년 1월 29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2004.1.27~29, 개성)하여 안정적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와같이 2004년 한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한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사업추진 체계와 법·제도가 마련되고, 1단계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시범단지내 공장 건설에 착수한 기업중 2개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동생산을 개시함으로써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성공단개발에 합의한지 4년반 만에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 【 개성공단 개발 주요 일지 】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 주도)	'02.12.26
	○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 전력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3
	○ 통신공급 관련 합의서 체결	'04.12.30
북측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 「개성공업지구법」 1차 개정	'03.4.14
	○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 「노동」 및 「세금」 하위규정 제정·공포	'03.10.1
	○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남북당국간 합의	○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8
	○ 투자보장 등 4개 경험합의서 발효	'03.8.20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1.29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8.16
	○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	'04.9.8
	○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17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	'04.10.19
	○ 개성공업지구관리위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 개성공단 우리은행 개점식 개최	'04.12.7
	○ 리빙아트 개성공장 준공식 및 제품생산 기념식	'04.12.15
	○ SJ테크 개성공장 준공식	'04.12.28
	○ 시범단지 4차(2개) 협력사업 승인	'05.1.26

## 2. I단계 100만평 개발

### 가. 시범단지 조성

#### (1) 공장용지 분양

시범단지 분양을 위해 2004년 4월 8일 한국토지공사는 통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아산(주) 등 관계자를 중심으로 「분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2004년 5월 18일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36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다. 이중 15개 업체가 선정되어 6월 14일 한국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인 평당 149,000원으로 책정되었다.

#### (2) 공장 건설 및 운영

시범단지 분양을 받은 입주기업들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2005년 1월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기업들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중이다. 특히 공장건설에 착공한 기업 중 9월 10일 제일 먼저 공장건축에 착수한 (주) 리빙아트는 12월 15일 공장 준공식 및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출하된 냄비 1,000세트는 롯데백화점에서 인기리에 시판되었다. 이어서 (주) SJ테크도 12월 28일 공장 준공식을 갖고 생산에 착수하였다.

## 【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

(단위 : 평, 억원)

구 분	업체명	분양면적 (건축면적)	투 자 금 액	업 종	비 고
1차승인 ( '04.9.8)	부천공업(주)	2,439(850)	45	전기공급, 제어장치	
	(주)매직마이크로	1,222(590)	30	전자부품, 영상장비	
	(주)대화연료펌프	1,221(611)	50.8	자동차부품	
	삼덕통상(주)	2,439(2,900)	49.6	신발제조	
	(주)태성산업	2,439(1,273)	60	플라스틱 제품제조	
	문창기업(주)	1,627(761)	38	봉제의복	
	용인전자(주)	2,439(1,134)	40	전자부품	
2차승인 ( '04.9.17)	(주)리빙아트	999(590)	45	기타 금속제품	12.15 준공
	(주)SJ테크	1,626(783)	40	플라스틱제품	12.28 준공
	(주)신원	2,439(693)	37.9	봉제의복	
	(주)호산에이스	999(583)	26	일반기계제조	
3차승인 ( '04.10.19)	(주)로만손	2,621(1,417)	155.8	시계 및 부품제조	
	(주)TS정밀	1,627(654)	28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4차승인 ( '05.1.26)	(주)제씨콤	1,778(606)	43	통신, 방송장비 제조	
	재영솔루텍(주)	2,439(821)	50	기타 기계제조	

한편, 공업지구에서 공장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건물 등록, 설립기업에 대한 창설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등에 대한 권한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있는 바,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필요한 인허가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에 근무하게 되는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0달러(임금

인상을 연 5% 이내,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별도 납부)이며, 기업소득세로는 결산이윤의 14%(하부구조건설 분야, 경공업 분야,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10%로 우대)를 내게 된다.

개성공단에서의 북측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이 북측 인력알선기업에 필요한 노력을 신청하고, 인력알선기업이 인력을 추천하면 기업과 추천된 개별 근로자 간에 채용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2005년 1월말 현재 북측 인력알선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입주업체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현대아산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내 기업의 인력채용과 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권을 갖고 있다. 2005년 1월말 기준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측 인력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주)(하청업체 포함)이 부지정리와 건설 등에 1,073명을 고용하고, 한국토지공사(주)가 14명을 고용하였으며 (주)리빙아트 및 (주)SJ테크가 각각 269명, 48명을, 2005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핵심기술자를 교육중인 (주)신원 및 삼덕통상(주)이 각각 266명, 12명을, 관리위원회 및 편의시설에서 28명을 고용하여 전체 1,710명이 고용되어 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북측 근로자들에게 남측의 기계·설비에 맞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근면 성실과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신을 이 해시키고 체득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입주기업 주관하에 기초적인 직무안내와 각 기업별로 요구되는 기술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임금, 퇴직 등 노무관리는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동 노동규정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추후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편의시설 설치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2004년 9월 8일 은행입점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은행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우리은행」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개설할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1월 2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우리은행이 12월 7일 시범단지에서 개점식을 갖고 은행업무를 시작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측 인원에 대하여 송금, 환전, 계좌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내 점포 설립은 경수로 사업을 위한 금호부지 점포 설립 승인('97.11 외환은행)에 이어 두번째 북한내 은행 지점 개설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9일 편의점인 훼미리마트 지점 설립 승인에 이어 11월 19일 사단법인 YMCA 그린닥터스 및 아라코(주)에 대해 각각 개성공단내 응급의료시설 및 식당 설치·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아라코(주)는 12월 10일 급식사업을 개시, 훼미리마트는 12월 16일 편의점을 개점, YMCA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은 2005년 1월 8일 진료를 시작하였다.

## 나. 본단지 개발 추진

### (1) 부지조성 공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공단개발사업은 2004년 4월 13일 개발업자가 북한과 토지임차료·지장물 철거비 등 비용으로 총 미화 1,60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05년 1월말까지 약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 (2)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녹지, 특수시설물), 그리고 외부기반시설인 전력, 통신시설 등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6년도 말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의 건설비용

1,095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2004년 9월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아울러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사업비 496억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대출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용수시설은 공단 북쪽 약 24km에 위치한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4.5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측에서 자체 시행기로 한 댐 축조 및 터널 공사 부분의 자재·장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여 현재 북측과 협의 중이다. 또한, 북측의 설계도면 수준이 낙후되어 정·배수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등에 대한 설계 보완이 필요하며, 설계보완이 끝나는 2005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폐수처리장은 1단계 지역 내에 7천평 규모의 부지에 하루 3만1천톤 처리시설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에 북측에서 공단 폐기물은 책임지고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단계 토지이용계획에 시설 부지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4년 5월 북측이 폐기물처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2만평(매립시설 17천평, 소각시설 3천평)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를 위한 위치선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5년도 상반기 중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에 있다.

단지내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는 2004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 1월말 현재 약 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특수시설물(교량 등)과 녹지시설은 설계용역 중으로 특수시설물은 2005년 3월 착공, 녹지시설은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범단지에서는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용수와 하수처리는 우선 입주업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되,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을 설치하였다. 즉 지하수(관정 5개소, 600톤/일)를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하고, 하수는 500톤 처리규모의 임시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하는 등 진입도로, 우수, 오수, 상수관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입주 및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3) 전력 및 통신공급 협상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8.27~30) 및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2.10.30~11.2)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외부기반시설 건설은 상업적 차원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공급자와 북측 관계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과 관련해서 당국간 협상 및 사업자간 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왔으며, 2004년 12월 3일 「한전」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제7차 전력협상에서 양측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4년 9월 30일 남측구간(약15km)에 대한 배전선로 공사를 기 완료한 가운데, 북측 구간 공사도 지난 2005년 1월 24일 착수하였다. 개성공단에 공급하게 될 전력은 시범단지 2만2천9백V 배전선로로 1만5천kW를 공급하고, 1단계 100만평이 개발되는 2007년경에는 15만4천V 송전선로로 10만kW를 공급하게 된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차원을 넘어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측의 전력이 휴전선을 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통신공급 문제는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2002.12.6~8, 금강산)에서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공단 내부 및 공단과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었다. 이후 우리측 사업자인 KT와 북측간 통신공급을 위한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여 2004년 12월 30일 제9차 통신실무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망을 개성공단-개성(전화국)-문산으로 직접 연결하되, 시범단지 제공서비스로 전화, FAX를 우선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은 시범단지에 통신서비스가 제공된 다음 협의기로 하였다. 또한 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요금, 정산 등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빠른 시일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통신요금은 1분당 0.5달러 범위내에서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완화되어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증대와 남북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개성공단사업 추진기반 구축

#### 가. 관리 체계 정립

##### (1)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 현지에서 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을 맡게 될 관리기관은 북한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설립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기관의 발족을 위해 2004년 6월 22일 이사장에 김동근 전 한국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고 동년 6월 29일 현대아산(주), 한국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준칙 등 세부규정을 수립, 관리위원회 창설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법」상의 관리기관 명칭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로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고, 10월 20일 개성 현지에서 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개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은 관리위원회의 청사건립 및 운영비 등 225억원(’04년 46억)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는 북측 법률에 따라 북측 지역에 설립되는 법인이지만, 우리측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립·운영되어 북측 지역에서의 승인·등록·허가 등 행정업무를 우리책임과 권한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내의 산업단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

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현대·토공 등 개발사업자 및 우리정부의 '지원단'은 물론이고, 북한의 개성공단사업 추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입주기업의 생산·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로 건축되었으며, 1단계 100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개성공단 중심부에 본건물을 건축, 완전한 면모를 갖추어 예정이다.

한편, 2004년 10월 27일 관리위원회는 개성 현지와 업무 연락 및 출입업무를 담당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의 현판식을 가졌다. 서울사무소는 개성공단으로의 인원왕래·물자반출입, 개성~서울간 및 관리위원회~지원단간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있다.

## (2)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이하 '지원협회')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 사단법인으로서 2004년 11월 3일 통일부의 등록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이 지원협회는 11월 8일 관리위원회와 업무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1월 26일 지원협회에 대해 관리위원회에 업무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북한법인에 해당되는 관계로, 지원협회가 관리위원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정부 및 국내기관이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기금) 확보·지원, 관리위원회 근무인원 파견, 입주업체 지원 등을 지원협회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6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준비팀」을 구성하여 공단개발 운영대책 수립,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해결, 입주기업 지원대책 강구, 기반시설 공사계획, 지원단 설립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4년 10월 5일 통일부의 조직으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국장급)과 4개과(지원총괄과, 운영지원과, 투자지원과, 건설지원과)의 조직으로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8개 정부부처 27명의 인원이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총괄해 나가도록 하였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 절차 등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단이 출범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업무협조는 물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원단은 개성공단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 전문가 등 자문 기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이하 ‘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반 정책·전략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은 2004년 8월 31일 개성공단 관련단체, 학계, 전문가,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 3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포럼내에 운영위원회와 총괄·분양전략·인프라·인력문화 등 4개 팀을 구성, 기능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 개발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사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 및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04년 12월 29일 북한의 법제도·경제특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6명을 선정하여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이하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법률자문회의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해석·적용, 법적문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시행세칙·준칙)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5.1.1~2005.12.31)

성 명	현 직	분 야
이철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노동법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 업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 겸임)	사 법
이효원	법무부 특수법령과 과장(검사)	공 법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금융산업1팀(정책제도) 수석연구원	상 법
김광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과장(변호사)	현장실무

#### 나.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대표 면담, 입주기업책임자회의, 개발사업자(현대아산(주)·한국토지공사)·관리위원회·지원단간 정례회의,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 (1) 전략물자 반출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자재 반출과 관련,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사용,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간 국제협약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다양한 사후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한편, 미국과는 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2004년 8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바세나르협약(WA) 등 전략물자와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개성공단 물자 반출과 관련, 양국 실무자간 제1차 한·미실무협의회(2004.9), 미 상무부 주최 국제회의(2004.10) 등을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미국 EAR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미국 이외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설명,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 (2) 원산지 및 판로 문제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데 있어서 원산지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간에 실질적인 협상





리빙아트 생산제품

타결을 선언한 한국·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단지 조성이후 제품생산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상의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외 판로 확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국가별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규제, 쿼터규제, 관세율, GSP세율 등을 조사하는 한편 개성공단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 다각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3)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부천공업(주) 등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키로 하였다.

총 투자 소요액의 약 70% 수준에서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다. 대출조건은 일반 경험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은 최대 8년(3년 거치), 지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다만, 개성공단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부동산규정」 등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함을 감안,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하였다.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후취담보비율(토지 및 건축물 최대 50%, 제조설비 최대 30%) 상향조정' 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실 건축비 소요분에 대해 후

취담보비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90%까지 보전하는 손실보전제도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4) 통행 등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의선의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 간소화가 선결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7월 8일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이하 ‘특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 방북승인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 방북신고를 ‘방문 7일전’에서 ‘4일전’ 까지 단축 ▲ 협력사업승인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출입·체류합의서」 발효 후 신변안전 보장서류 제출 생략 ▲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를 11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기업인에 대한 현장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통일부에서 해오던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방문신고 확인인 날인 등은 11월 23일부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어서 2004년 12월 31일에는 ‘특례’를 개정, ▲ 북한방문승인 처리기한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 단수 방북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 ▲ 출입계획 제출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하게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이로써 입주기업의 통행관련 절차가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수시로 왕래하는 기업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4년 9월 8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9월 20일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주 5일(월~금요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남북 왕래자의 출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 1. 개관

민간단체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노동자, 농민, 학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공동행사가 성사되어 남북한 주민간 접촉 기반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고구려사 문제 등에서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02, '03년에 이어 개최된 '04년 6.15 4주년 기념행사는 서울이 아닌 인천지역에서 개최되어, 보다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치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 탈북자 대량입국 등 남북간에 민감한 사안의 발생으로 인해 당국간 대화와 함께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다소 소강국면을 맞게 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런 상황속에서도 민간교류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나마 이어짐으로써 일련의 사태가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완충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남북 사회문화 교류 추진

#### 가. 남북공동행사

2004년은 민간단체의 남북공동행사가 쌍방향 교류행사로 정착된 한해였다. 3.1절 민족공동행사는 북측의 사정으로 남과 북에서 각기 개최되었고, 2003년에 사스(SARS)로 개최 되지 못하였던 5.1절과 6.15 남북공동행사는 평양과 인천에서 개



2004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최되었다.

특히 6.15 남북공동행사는 남북 공동행사로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농민통일대회는 2001년에 이어 금강산에서 개최됨으로써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4년 하반기에는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 등으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간교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8.15와 개천절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남북공동행사는 종교·노동·농민·청년·여성 등 다양한 민간부문 단체들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례화 되었으며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 나. 학술교류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 토론회’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남북이 합의하여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5월에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의 서울행사 참가를 위해 북한위원회 대표단 9명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남북이 한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맞물려 북한의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사진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가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향후 고구려 유적 보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다. 종교교류

남북한 종교교류는 양측 종교단체간 접촉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 대한 복원사업을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계종이 남북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웅전 낙성식이 11월에 남북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남측의 조계종 관계자와 불교신자, 그리고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참석하였다.

천태종이 추진하는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 천태종에서 기와 40만장과 단청용 페인트 20톤 등을 지원하는 가운데 복원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낙성식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독교계에서도 남북기독교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장총회」에서는 평양 대동강구역에 400평 규모의 온실과 200평 규모의 예배처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 온실을 건립하였고, 12월 현재 예배처소(평양제일교회) 건축을 위한 자재 1차분을 북측에 보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북측의 기독교지도자 양성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도 2004년 5월 금강산에서 총회장 등이 참석, 남북공동기도회를 개최하였고,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3월 독일에서 개최된 독일교회 초청, 남·북·독일교회 선교대회에 참석, 남북간 선교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는 7월 「조선카톨릭협의회」와 창립30주년 기념 남북공동미사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150여명이 방북을 준비하였으나, 7.8 조문사태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한국정교회」에서는 북측 「조선정교회」와 러시아의 지원으로 평양에 건축 중인 「정백사원」 건축을 위한 내부 시설용품 등 자재를 지원하면서 남북정교회간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2005년도 「정백사원」준공식에 우리측 대표단이 참석기로 합의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 라. 문화예술교류

남북간 문화예술 부문 교류는 남북 공동전시,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서울에서 '남북공동 기획, 고구려' 전('04.4.9~6.20)을 통해 북한에서 제작한 고구려 유물 모사품을 전시하였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남북공동전시 '꽃으로 본 내 나라'전은 남북의 꽃을 소재로 남북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을 평양과 서울에서 교차전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상반기 EBS에서 방영하여 호응을 얻었던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는 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북측과 추가제작을 합의, 15편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주)민족네트워크는 북측 인력을 활용한 임가공 형태로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마. 방송교류

KBS는 2004년 6월에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를 북한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평양지역 고구려 역사유적은 KBS 취재팀이 맡고, 평양 이외지역의 유적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촬영함으로써 남북 공동제작의 성과를 거두었다.

MBC는 2004년 6월에 취재팀이 평양을 방문하여 고구려 유적을 취재해 6월 24일 '살아있는 고구려'란 제목으로 TV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SBS는 2004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취재차 방북하여 고구려 유적인 강서대묘를 취재 방영하였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아테네 올림픽 기간동안 올림픽의 주요경기 장면 및 남북 선수들의 경기장면을 북측에 중계해줌으로써 남북방송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바. 아테네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남북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상 최초로 선수단이 공동입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주요한 국제 체육무대에서 남북 공동입장의 기조를 이어왔다.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8.13~29)에서도 남북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개·폐막식에 공동입장을 실현함으로써 30억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포함한 세계인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공동입장 참가인원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제27회 시드니 올림픽때 보다 한 단계 진전했다고 할 수 있다.



## 제7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1. 남북교류협력 관련 국내법·제도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4년에는 우선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2004.1.28)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 경험기업이 제기해 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를 신설하고 신용대출제도 및 대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손실보조제도 실시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2004.7.8)하여 개성공단 관련 방북승인 처리기간(20일 ➡ 10일)과 수시방북증 소지자의 방북신고 기간(방문 7일전 ➡ 4일전), 개성공단 관련 협력사업승인 처리기간(30일 ➡ 15일) 등을 단축하였고, 협력사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개정(2004.7.8)하여 매 귀환시마다 방문증명서를 반납하던 규정을 없애고,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방문증명서 관련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남북간 청산결제거래 시행 합의에 따라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게임물에 대해서도 승인대상 품목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도 개정



(2004.7.8)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시범단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2004.12.31)하여 방북승인 처리기간을 재차 단축(10일 → 5일)하고, 수시 방문증명서 소지자의 북한방문신고를 출입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2. 남북경제협약서 발효 및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해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제협약서를 타결한 이래 남북은 그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제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된 남북경제제도실무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련의 합의서 채택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4개 경제협약서 발효(2003.8.20)의 선례에 따라 그간 채택된 남북간 경제협약서들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총 9개의 경제협약서들은 북측이 내부절차를 마친 후 상호 발효통지문을 교환하면 정식 발효되며, 정식 발효될 경우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등 남북경제협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9개 경제협약서의 후속조치와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갈 방침이다.

### 【 9개 경험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2004.9.23 국회본회의 통과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2004.1.29 채택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2.12.6 채택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채택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2002.12.8 채택	2004.12.9 국회본회의 통과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004.4.13 채택	
남북해운합의서	2002.12.28 채택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2004.5.28 채택	

##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 · 운용

### 가.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4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2조 964억원, 민간출연

금 23억원, 운용수익금 3,24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조 3,527억원, 기타 수입금 56억원 등 총 4조 7,817억원이 조성되었다.

특히 2005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는 2004년도(1,714억원)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한 5,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증액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

(2004.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등	공자예수금 *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7	—	49,388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4	—	78,162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2	30,392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6
2002	490,000	78	42,036	505,000	1,037,114
2003	300,000	1	46,515	823,000	1,169,516
2004	171,400	1	38,371	310,000	519,772
계	2,096,400	2,246	330,406	2,352,683	4,781,735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 나.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무상 지원과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유·무상 지원으로 대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협력 무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332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인적왕래 지원 11억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31억원 등 총 42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적왕래 분야에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 7억원, 6.15공동선언 4주년 국제토론회 지원 14억원,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 지원 13억원 등 7건의 지원이 있었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지원 5억원, 조계종 신계사 복원사업 지원 5억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원산농민기술풍습소 개·보수 지원 4억원 등 10건의 지원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 유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388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교역경협 자금으로 474억원(교역자금 대출 64건 137억원, 경협자금 대출 12건 237억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3년 187억원(교역자금 대출 79억원, 경협자금 대출 108억원) 대비 153% 대폭 증가한 규모이다.

민족공동체 회복 무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조 1,647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 이산가족교류 지원사업에 3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제9차 및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14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설계비 지원 13억원 등이며 총 5건의 지원이 있었다.

2004년도 인도적지원사업은 46건 1,2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비료 30만톤 지원 972억원, 용천재해 긴급복구 관련 자재·장비 등 지원 31억원, 유진벨 결핵퇴치 지원 10억원, UNICEF를 통한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12억원 등이다.

2004년도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은 총 11건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604억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 25억원, 금강산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지원 15억원 등이다. 2004년도 사회문화

분야 기반조성 사업은 아테네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지원 6천2백만원 1건이 있었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유상지원 사업은 2004년 12월말까지 총 1조 9,814억원이 집행되었다. 2004년도에는 대북 자재·장비 차관 대출 397억원, 대북 식량차관 40만톤의 일부인 1,020억원,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대출 43억원, 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870억원 등 총 5건 2,329억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 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연수경비 지원까지 총 46건 1조 6,902억원의 승인사업에 대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 【 연도별 · 용도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2004.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경상사업	남교협지 북류역원	인적왕래지원		277 (1)	253 (1)	23,686 (9)	1,142 (3)	1,056 (7)	26,413 (20)	
		사회문화협력지원	980 (3)	637 (1)	102 (1)		654 (2)	3,098 (10)	5,472 (16)	
		교역경협손실보조	1,268 (1)						1,268 (1)	
		소 계	2,248 (4)	914 (2)	355 (2)	23,686 (9)	1,796 (5)	4,154 (17)	33,152 (37)	
	민족공동체복지회지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3)	2,830 (5)	1,298 (5)	2,029 (6)	2,996 (6)	3,158 (5)	13,297 (19)	
		인도적 지원사업	260,827 (13)	97,737 (9)	97,615 (25)	122,585 (30)	150,134 (36)	122,547 (46)	851,443 (119)	
		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	4,882 (1)	15,994 (4)	89,850 (2)	36,789 (7)	76,318 (8)	76,096 (12)	299,927 (17)	
		- 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	4,882 (1)	14,578 (2)	89,850 (2)	36,789 (7)	76,318 (8)	76,033 (11)	298,449 (14)	
		- 사회문화분야기반조성		1,416 (2)				62 (1)	1,478 (3)	
		소 계	266,695 (17)	116,560 (18)	188,763 (32)	161,402 (43)	229,447 (50)	201,801 (63)	1,164,668 (155)	
		합계	268,943 (21)	117,474 (20)	189,118 (34)	185,088 (52)	231,243 (55)	205,954 (80)	1,197,820 (192)	
	용자사업	남교협지 북류역원	교역경협사업 자금대출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138,816 (123)
			- 교역 자금대출		500 (1)	1,072 (9)	390 (5)	7,933 (29)	13,677 (64)	23,572 (108)
			- 경협사업 자금대출			45,000 (1)	35,767 (3)	10,777 (2)	23,700 (12)	115,244 (15)
소 계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138,816 (123)	
민족공동체복지회지		민족공동체복지회지 대출		86,740 (1)	18,955 (1)	127,325 (2)	192,053 (4)	145,957 (4)	571,030 (7)	
		경수로사업 대출	67,523 (1)	325,936 (1)	300,284 (1)	300,883 (1)	328,745 (1)	86,984 (1)	1,410,355 (2)	
		소 계	67,523 (1)	412,676 (2)	319,239 (2)	428,208 (3)	520,798 (5)	232,941 (5)	1,981,385 (9)	
합계		67,523 (1)	413,176 (3)	365,310 (12)	464,365 (11)	539,508 (36)	270,318 (81)	2,120,201 (132)		
총계		336,466 (22)	530,650 (23)	554,428 (46)	649,454 (63)	770,751 (91)	476,273 (161)	3,318,021 (324)		

▶ ( ) 는 금사업 건수

##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2004.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조성 및 지출	조성(A)	정부출연	20,964
		민간출연	22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3,527
		운용수익	3,248
		기타수입금	56
		계	47,817
	지출(B)	경상지원	11,978
		운영비용	2,925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상환	7,147
		계	22,050
순조성액(A-B)		25,767	
조성(B)	투자자산	대출잔액(C)	20,41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600
	유동자산	예치금	3,395
		유가증권	1,355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25,767(5,350)

\* 현보유자금 5,350억원 = 조성액(A) 47,817억원 - 사용액(B+C) 42,467억원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 대출(30억 미만 교역자금대출, 50억 미만 경험자금대출)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괄(실적한도)대출방식의 도입,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및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등 기금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소요자금의 70~80%에서 80~90%로 대출규모를 확대하였고, 신용대출 대상 기업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용대출 비율을 종전보다 10% 인상하고, 신용보증서 제출시 미보증금액에

대해 신용대출, 북한 소재 자산을 담보로 인정, 신용대출 실시 등 대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자금 대출이 2002년 5건 3억9천만원, 2003년 29건 79억3천3백만원, 2004년 64건 136억7천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교역의 안정성 제고와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5월부터 교역분야 손실보조제도를, 2004년 9월에는 경협분야 손실보조제도를 실시하였다. 2004년 9월부터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자금을 대출승인 하면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조치를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 되고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북간 건설교통 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04년 10월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 지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12개 부처, 총 13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39회 개최하여 모두 25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4년에만 총 1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모두 3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중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부문이 11



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개성공단 건설 관련 부문이 7건,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 부문 6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 부문 3건, 기타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계획」 등이 9건을 차지하였다.

## 【 2004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회차	의결일자	안건	
		의안번호	의안
122	'04.1.15	218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손실보조제도 개선
123	'04.2.21	219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124	'04.3.23 (220) '04.3.29 (221~223)	220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21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3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5	'04.4.16	224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225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126	'04.4.28	226	북측 용천재해 긴급구호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27	'04.5.10	227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28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28	'04.5.31	229	200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129	'04.6.25	230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관한 특례안
		231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232	2004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0	'04.7.2	233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131	'04.7.14	234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2	'04.7.23	235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3	'04.9.8	236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남북협력기금 지원
		237	개성공단 관리기관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
		238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7개) 협력사업(자) 승인
		239	금강산 관광지구 내 도로포장 남북협력기금 지원
		240	아테네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
134	'04.9.17	241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4개) 협력사업(자) 승인
135	'04.9.24	242	200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243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136	'04.10.19	244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2개) 협력사업(자) 승인
137	'04.11.9	245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6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7	용천재해 복구용 자재·장비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48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 승인
138	'04.11.9	249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50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계획
		251	남북한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139	'04.12.24	252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
		253	UNESCAP의 대북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